



박광태 광주시장이 17일 광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광주 야구장 건립 시민추진위'에서 입을 굳게 다문 채 생각에 잠겨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박광태 광주시장 불출마

어제 강운태의원과 회동... 오늘 기자회견

3선 도전을 준비해온 박광태 광주 시장이 이번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18일 오전 11시 시청 5층 브리핑실에서 '공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의 구체적인 배경과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박 시장은 이날 '광주시장 선거 불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민주당과 박 시장 주변인사들에 따르면, 박 시장은 평소 지인들에게 '외지인이 광주시장 공천에 참여하는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잘못된 것으로, 결코 도입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최근 광주시장 공천방식으로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되자 극도로 불편한 심경을 토로해왔다.

박 시장은 지난 12일 '시민배심원 50% 반영'이 공천 룰로 정해지자 "당인으로서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15일 간부회의에선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강조했고 16일 밤엔 측근들에게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

자"고 말할 것으로 전해져 불출마설이 급속히 퍼졌다.

이에 따라 기자회견에서는 '민주당의 뒷발인 광주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막지 못한 책임을 지고 광주시장 선거에 나서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박시장)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난 8년간의 시정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회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시장은 17일 민주당 광주 시장 유력 후보인 강운태 국회의원과 점심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돼 선거와 관련한 연대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박 시장이 불출마할 경우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구도는 강운태 의원, 이용섭 의원-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단일후보,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양형일 전 의원 단일후보 등 3자 대결로 압축되게 됐다. 이에 따라 민주당 중앙당이 오는 21일 면접을 통해 광주 시장 후보를 2~3명으로 줄이기로 한 것은 사실상 무의미해졌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합종연횡 시작 이용섭-전갑길, 정동채-양형일 단일화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 간의 '합종연횡'이 시작됐다.

17일 이용섭 국회의원과 전갑길 전 광산구청장,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과 양형일 전 국회의원이 각각 후보 단일화에 나서면서 광주시장 경선이 구민주체와 열린 우리 계의 맞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이 의원과 전 청장은 이날 광주시의회에서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통

합적·혁신적 리더십 등 변화를 바라는 광주시민의 염원이 성취될 수 있도록 단일화하기로 했다"며 "탈락한 후보는 단일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7일과 18일 양일간 여론조사 해 지지율이 높은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정 전 장관과 양 전 의원도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화합과 통합을 기치로

광주의 먹고 살길을 개척하고 민주화 성지인 광주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단일화하기로 했다"면서 "특정지역의 연합이 아니라 광주시 전체를 아우르고, 범민주개혁 세력을 포용하는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으로 세계속에 도약하는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들도 19일과 20일 이틀간 여론조사 해 후보를 단일화하기로 합의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목포에 세계적 성당 만든다

대주 허재호 회장 기증 23일 첫삽 '랜드마크'로

세계적 규모의 대성당 등 가톨릭 성지(조감도)가 오는 2013년까지 목포에 조성된다.

천주교 광주대교구(교구장 최창무 대주교)는 "오는 23일 목포시 산정동 옛 '성 골롬반 병원' 부지에서 '성 미카엘 기념 대성당' 기공식을 갖는다"고 17일 밝혔다.

'성 미카엘 기념 대성당'은 2만9천972㎡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1천석 규모의 대성당과 사제관, 교육관, 수녀원, 가톨릭 역사박물관 등의 부대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06년 대주교 허재호 회장이 천주교 광주대교구에 사재 300억원을 기증하면서 비롯됐다.

목포시도 232억원을 들여 성당



주변에 사회복지시설(4천500㎡)과 공용 주차장(1천320㎡), 전망대 등을 건립하기로 했다.

천주교 광주대교구와 목포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가톨릭 성지조성사업 시행 협약식'을 체결, 실시 설계 등 사업추진을 해왔다.

대성당 부지는 광주·전남지역 가톨릭 교회의 시발점이자 선교할

동의 중심지였다. 성당 명칭은 현재의 산정동 성당 수호 성인의 이름에서 따왔다.

목포시 관계자는 "기념 대성당을 유달산과 함께 목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삼고 산정동 일대를 세계적인 명소로 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임영준기자 lyc@

성폭행범 '청송' 보낸다

법무부 사형집행시설 설치도 검토

정부가 성폭력 범죄 등 흉악범을 청송교도소에 집중 수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호감호제' 제 도입을 검토 중인 가운데 법무부가 보호감호 대상 범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지난 16일 청송교도소에서 사형집행시설 설치 검토 등 강력한 성폭력 근절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살인과 성

폭력, 강도 등 3대 중범죄를 보호감호가 필요한 흉악범죄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호감호제 시안'을 마련해 현재 세부 요건을 논의 중이다.

이 가운데 성폭력 범죄는 아동 성폭행은 물론, 모든 성폭행 범죄자에 대해 보호감호를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절도와 폭력 등도 상습성과 죄질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적용할 방침이어서 사실상 5대 범죄가 모두 보호감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는 조만간 형법 개정을 위해 구성된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시안을 안건으로 올려 심의를 받을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청송교도소에 사형수 등 흉악범을 집중 수용하고 사형집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련 예규에 대한 개정 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알림

즐기세요, 현대미술의 세계

광주일보-광주시립미술관 연중 강좌 제2탄

이용우 광주비엔날레 부이사장 '예술의 인문학적 사고'

* 선착순 100명·무료

19일(금) 오후 3시 광주 농성동 광주시립미술관 상록전시관 光州日報社



깨끗한 광주의 수돗물 빛어울수

빛어울수!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광주의 수돗물 은 깨끗하나 안심할 수 없는 한때 역사적인 한계에 직면한 광주시민들께, 빛어울수 수돗물 정수기를 보급하여 믿을 수 있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도록 광주시민들에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빛어울수!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광주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최고의 생활실용 시장

- 수돗물, 지하수, 빗물, 우물 등 다양한 수질에 맞는 정수기 선택
- 수돗물 정수기 교체 주기 및 관리 방법 안내
- 정수기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
- 정수기 구매 시 할인 혜택 안내
- 정수기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
- 정수기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

광주광역시 수도사업본부